

일.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:

❖ 파벌과 다툼.

-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들이 나타났습니까(고전 1:12)?
-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거쳐 갔고, 교인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(바울, 아볼로, 베드로 등)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(고전 1:11).
- 그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같은 기별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,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(고전 3:5-8).
- 이런 변화는 서서히 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(고전 3:3).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인들은 성만찬 의식을 왜곡시켰으며(고전 11:33), 심지어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(고전 6:1).

이. 하나됨을 유지하는 법:

❖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.

- “바울은 그들에게 “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까?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?” (고전 1:13)라면서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습니다.
-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각자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. 어떤 형제, 혹은 특별한 자매의 생각이나 견해를 따르거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함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.
-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은 모두가 똑 같은 사람이 되는, 다시 말해 다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사소한 의견 차이, 그리고 서로 다른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,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됩니다(고전 12:12-13, 25, 27).
- 각자가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에만 교회안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.

❖ 지혜와 성숙함.

-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‘그리스도 안에서 아기’ 또는 ‘육신에 속한 사람’이라고 했습니다(고전 3:1).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보다 사람들에게 중점을 둡니다.
- 특정 지도자들을 다른 지도자들보다 도가 넘도록 따를 때 교회안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.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.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고 권면합니다(고전 2:6).
- 어린 아기: 어린 아기 같은 (고전. 3:1); 우유를 먹고(고전. 3:2); 육적 세상사람 (고전. 3:3);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림 (고전. 3:4).
- 성숙함: 어른이 됨(고전. 14:20); 단단한 음식을 먹고 (히. 5:14); 영적인 사람 (고전. 2:13); 영적 분별력이 있음 (고전. 2:14).

❖ 봉사과 겸손.

-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 세기에도 사람들은 정치적, 철학적, 종교적 신념 또는 여러 다른 생각들로 분열되어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에 스며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
- 지도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.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,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.
-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,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‘그리스도의 일꾼’으로 교회를 섬깁니다(고전 4:1).
-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따라해야 합니다. 즉, 언제나 겸손하게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(빌 2:3-8).
-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한다면,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?

❖ 지도자들을 존중함.

- 지도자들 사이에 경쟁이나 파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과 고린도에서의 활동을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(고전 3:5-6; 4:6; 16:12).
-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헌신할 때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(고전 4:2; 딤후 5:17)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자신을 판단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(고전 4:3-4).
-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형제자매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, 심지어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생명을 바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(고전 4:11-13; 고후 11:23-28).
- 지도자나 성도 모두 서로 싸우거나 다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,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.